

화학 벤처기업 수출 증가 “미미”

산자부, 2001년 5억2000만달러 그쳐 … IT부문 및 휴맥스 편중

2001년 석유 및 화학부문 벤처기업의 수출이 5억2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3% 증가에 머물러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2001년 벤처기업 수출은 총 55억5400만달러로 2000년에 비해 14.5% 증가했으며, 12월 수출은 13.3% 증가한 6억8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01년 총수출이 12.7%, 2001년 12월 수출이 20.4%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경기침체와 일부 벤처기업의 비리발생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벤처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2001년 총수출이 21.1%, 12월은 28.7% 감소했으며, 중소기업은 2001년 1.7% 증가했으나 12월은 7.5% 감소했다.

수출실적 비교

(단위: 100만달러, %)

구 분	1999		2000		2001	
	1- 12월	12월	1- 12월	12월	1- 12월	12월
전체 수출(B) (증감률)	143,685 (8.6)	14,955 (20.4)	172,268 (19.9)	14,977 (0.1)	150,439 (△12.7)	11,914 (△20.4)
대기업 수출 (증감률)	94,352 (4.6)	9,831 (14.4)	108,632 (15.1)	9,158 (△6.8)	85,738 (△21.1)	6,533 (△28.7)
중소기업 수출 (증감률)	49,045 (16.9)	5,103 (33.8)	63,509 (29.5)	5,805 (13.8)	64,600 (1.7)	5,371 (△7.5)
벤처기업 수출(A) (증감률)	3,398 (39.2)	404 (43.3)	4,852 (42.8)	537 (32.8)	5,554 (14.5)	608 (13.3)
벤처기업 수출비중(B/A)	2.36	2.69	2.82	3.9	3.69	5.1

벤처기업의 수출증가는 IT 불황, 미국 테러사태 등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극적인 틈새시장 개척, 중국수출 호조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중국수출이 79.9% 증가해 벤처기업의 중국시장 진출이 수출증가에 크게 기여했는데,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2.82%에서 2001년에는 3.69%로 크게 상승했다.

벤처기업의 부문별 수출액

(단위: 100만달러, %)

벤처기업 수출 품목	2001.1-12월	12월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22(44.3)	233(48.3)
전기기기 및 장치 제조업	1,031(6.1)	116(22.9)
기계 제조업	685(△2.9)	57(△31.4)
비금속 및 금속제품 제조업	557(6.3)	58(14.8)
석유 및 화학제품 제조업	520(4.3)	40(△6.8)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61(△14.4)	24(△38.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241(19.3)	35(25.1)
음식료품/ 담배/ 목재/ 섬유업	201(△23.2)	16(△25.2)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휴맥스는 셋톱박스 수출호조에 힘입어 2000년 1억2500만달러에 이어 2001년 2억4200만달러로 1위를 기록했다. 2001년 12월에는 GSM, CDMA 단말기를 주로 생산하는 세원텔레콤이 3300만달러를 수출해 1위를 기록했다.

최근에는 벤처기업들이 수출시장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2000년에 비해 태영텔스타가 640달러에서 5700만달러로, 세원텔레콤이 53만달러에서 1억8000만달러로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자·전기가 52.9%, 기계류가 23.9%로 전체 벤처기업 수출의 76.8%를 차지했다. 전기·전자품목 중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이 17억2200만달러로 전체 벤처기업 수출의 31.0% 차지해 수출시장이 IT업종에 높은 편중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기업 수출액 순위

(단위: 100만달러, %)

연도 순위	1998		1999		2000		2001		
	회사명	수출액	회사명	수출액	회사명	수출액	회사명	1- 12	12
1	하이트론시스템	59	하이트론시스템	64	휴맥스	125	휴맥스	242	25.1
2	지애플	44	택산전자	61	하이트론시스템	73	세원텔레콤	180	33.2
3	웅천텍스텍	42.15	지애플	50	심텍	54	코어세스	168	0.5
4	기륭전자	42.13	휴맥스	44	지애플	52	한단정보통신	80	10.9
5	택산전자	41.6	심텍	37.9	파세코	46	성진지오텍	60	8.6
6	금광	26	파세코	37.8	자화전자	44.5	태영텔스타	57	5.0
7	와이지-원	25.2	텔슨정보통신	34	한단 정보통신	44.4	택산아이엔씨	51	9.0
8	한미정밀화학	25.1	용마전기	31.5	백금통상	42	아이엠알아이	49	6.9
9	오리엔탈정공	24	기륭전자	31.3	코텍	37.9	지애플	46	3.9
10	코맥스	23	에스에스아이	29	어필텔레콤	37.8	이화다이아몬드	44	4.4

지역별로는 아시아 수출비중이 48.6%로 가장 높았으며, 북미 20.3%, 유럽 18.3%로 파악됐으며, 유형별로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해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수출이 25억6600만달러를 기록해 전체 벤처기업 수출의 46.6%를 차지했다.

< Chemical Daily News 2002/ 02/ 28 >